

중학생의 내현적 자기애, 수치심, 분노, 반응적 공격성의 관계와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의 역할

안 지 현 이 승 연¹⁾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내현적 자기애, 수치심, 분노, 반응적 공격성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 관계에서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의 역할을 확인하기 위해 구조방정식모형 분석과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중학교 1·2학년 564명의 자기보고식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내현적 자기애가 수치심을 통해 분노에 영향을 미치는 단순매개효과와 수치심이 분노를 통해 반응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단순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내현적 자기애가 수치심과 분노를 순차적으로 통해 반응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이중 매개효과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 때, 분노와 반응적 공격성 간의 경로계수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내현적 자기애에서 반응적 공격성으로의 경로계수는 가장 미미하였다. 한편,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수준에 따라 상·하위 30%를 기준으로 집단을 구분하여 다집단 분석을 실시한 결과, 상 집단의 경우 내현적 자기애와 반응적 공격성의 직접 경로가 유의하지 않았으며, 내현적 자기애가 수치심으로 가는 경로에서 상·하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반응적 공격성 감소에 효과적인 개입전략을 논의하고, 특히 개입에 있어서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역할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내현적 자기애, 수치심, 분노, 반응적 공격성,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중학생

최근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으며, 학교폭력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2011년 청소년폭력 예방재단에서 전국 초·중·고등학교생 9,17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간 학교폭력 피해율은 18.3%, 가해율은 15.7%로 2010년의 11.8%, 11.4%에 비해 증가하였다. 자신보다 약한 아이들을 일부러 반복하여 괴롭히는 또래괴롭힘(bullying) 뿐 아니라, 평소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학생이 좌절과 어려움을

본 연구는 안지현의 2013년도 석사학위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1) 교신저자: 이승연,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E-mail: sleel@ewha.ac.kr

조절하지 못하고, 갑자기 분노를 표출하며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성 역시 증가하고 있다(경향신문, 2013; 한국일보, 2012). 청예단 실태조사에서도 ‘상대 학생이 잘못해서’ 폭력을 사용했다는 응답이 2009년 17%에 비해 2010년, 2011년 23%, 21.5%로 증가하였으며, 2011년에 처음 등장한 문항인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과하게 반응했다’에 28.6%의 학생이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가는 과도기로,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충동적이며 좌절 상황을 참지 못하며 쉽게 화를 내는 경향이 있고(서수균, 2007), 이러한 청소년기의 정서·행동적 특성은 청소년의 반응적 공격성(reactive aggression)을 유발하는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Barker, Tremblay, Nagin, Vitaro, & Lacourse, 2006). 반응적 공격성은 Berkowitz(1962)의 ‘좌절 공격성-모델’로부터 나온 개념으로(이홍, 김은정, 2012에서 재인용), 촉발된 자극이나 위협 등에 대한 방어적이며 충동적인 반응을 뜻한다. 반응적 공격성은 타인의 무시, 부당한 대우에 과민하며 타인의 행동을 의도적이고 적대적으로 해석하는 인지적 편향, 즉 ‘적대적 귀인오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청소년 시기는 인지적인 능력이 발달하지만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타인의 행동이나 의도에 대해 왜곡된 해석이 가능하며, 이로 인한 화, 분노, 적대적인 반응을 반응적 공격성으로 표출하게 된다(이홍, 김은정, 2012; Koolen, Poorthuis, & van Aken, Marcel, 2012).

반응적 공격성은 지위나 권력 등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주도적 공격성(proactive aggression)과는 기능적으로 차이가 있다(Dodge & Petit, 2003; Poulin & Boivin, 2000). 힘의 불균형 상태에서 피해자의 도발 없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또래괴롭힘은 주도적 공격성의

대표적 예이다(Espelage & Swearer, 2003; Salmivalli & Nieminen, 2002). 그러나 반응적 공격성은 자신을 위협하는 자극을 지각하거나 좌절을 경험했을 때 이에 수반되는 분노·적대감 등을 표출하는 기능을 갖는다. 좌절 상황에서 경험하는 분노나 적대감은 더욱 충동적이고 폭발적인 공격 행동을 특징으로 하는데, 연구에 따르면 반응적 공격성은 주도적 공격성에 비해 높은 수준의 분노와 적대감, 정서·행동 조절의 어려움, 좌절에 대한 낮은 인내력과 관련이 있으며(이홍, 김은정, 2012; Vitaro, Brendgen, & Tremblay, 2002), 또래로부터의 더 큰 거부와 사회적 고립 등을 경험하게 한다(Marcus & Kramer, 2001).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기의 충동적이고 반응적인 공격성 유형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한편, 공격성이 낮은 자존감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였던 초기 연구들은 공격성이 자존감과 관련이 없거나 혹은 높은 자존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한 연구들로 인해 혼동을 겪었다(Salmivalli, 2001). 지나치게 높은 자존감이 공격성을 유발한다는 연구들(Baumeister, Smart, & Boden, 1996; Bushman & Baumeister, 1998; Papps & O’Carroll, 1998)과 관련하여, Salmivalli(2001)는 공격성을 유발하는 지나치게 높은 자존감을 자기애적 자존감(narcissistic self-esteem)이라 보았다. 즉, 고양되고 웅대하지만 방어적이고 불안정적인 자기개념을 특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 평가 등 자존감을 위협하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더욱 공격적인 성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처럼 자기애는 지나치게 긍정적이고 고양된 자기개념으로 일반적으로 정의되어 왔으나(Raskin & Terry, 1988; Salmivalli, 2001), 최근 많은 이론가와 임상가들은 자기애를 단일 요인이 아니라 두

가지 하위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자기에적 특성이 자기 과시와 웅대함과 같은 외현적인 모습으로 드러나기도 하지만, 자기에적 특성이 내재화되어 취약성·두려움·우울이나 열등감 등으로 표현되기도 한다고 주장하며, 자기에적 특성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외현적 자기에(overt narcissism)와 자기에적 특성을 감추고 있는 내현적 자기에(covert narcissism)로 구분하고 있다(Akhtar & Thomson, 1982; Atlas & Thern, 2008; Cooper, 1998; Hendin & Cheek, 1997; Wink, 1991). 하지만 자기에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외현적 자기에만을 다루어 왔기 때문에, 자기에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내현적 자기에에 대한 연구 역시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

특히 내현적 자기에는 청소년기에 흔히 나타날 수 있는 반응적 공격성과 강한 관련성이 있으며, 이에 비해 외현적 자기에는 반응적 공격성과의 관련성이 약하다고 보고되었다(Salmivalli, 2001; Washburn, McMahan, King, Reinecke, & Silver, 2004). Baumeister 등(1996)은 자기 자신에 대해 지나치게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이 보이는 폭력적인 반응을 ‘위협된 자기 이론(threatened egotism theory)’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는 자신에 대해 지나치게 긍정적이고 과장된 자기개념을 지닌 자기에 성향자가 타인의 부정적 평가나 반응 등 자존감을 손상시킬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하면 이를 자아에 대한 위협(ego threat)이라 지각하고 공격적인 반응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Fossati, Borroni, Eisenberg, & Maffei, 2010). Thomaes, Stegge, Olthof, Bushman과 Nezlek(2011)의 연구에 따르면, 자기에 성향자는 자신을 부정적으로 표상하게 되는 정서, 즉 수치심에 매우 취약하며, 타인 혹은 외부환경의 평가에 의해 자기개념이 위협을 받는 경우 자기 평가와 외부 평가 간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해 타인에게 분노나 적대감을 갖게 되고, 이러한 감정에 반응하여 공격적으로 행동하게 된다.

여기서 수치심(shame)은 자신의 총체적인 자기(self)를 부적절하고 부족한 존재로 표상함으로 인해 생기는 정서로,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려는 인간의 기본적 동기를 방해하는 고통스러운 감정 중 하나이다(Tangney, Wagner, Fletcher, & Gramzow, 1992). 자기에 성향자는 자신의 긍정적이고 웅대한 자아상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동기화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열등하고, 무가치한 존재라고 느끼도록 만드는 타인의 부정적 평가와 그로 인한 수치심에 매우 취약하다. 특히 ‘과민한’ 자기에라고도 불리는 내현적 자기에의 경우, 자신에 대한 타인의 반응에 지나치게 민감하고 쉽게 감정이 상하며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느끼는 특징을 갖는다(Akhtar & Thomson, 1982; Cooper, 1998; Hendin & Cheek, 1997; Wink, 1991). 이와 같은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의 취약성은 자기에 성향이 거의 없는 사람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치심을 경험하게 한다. 내현적 자기에와 수치심의 관계를 살펴본 권희영과 홍혜영(2010)의 연구에서 이 둘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r=.60, p<.001$), 광진영과 하은혜(2010)의 연구에서도 유의한 정적 상관이 보고되었다($r=.48 \sim .60, p<.01$). 또한 이 연구에서 내현적 자기에는 수치심 변량의 31%를 설명하였다.

이처럼 자기에 성향자의 자기에적 욕구가 좌절되어 수치심이 유발될 경우, 수치심은 자기에 성향자에게 또 다른 취약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자기에 성향자는 자신의 웅대한 자아상이 수치심에 의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도하며 그 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분노감정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를 ‘자기에적 분노’라 부른다(Thomaes et al.,

2011). 수치심과 분노에 대해서 Lewis(1971)는 수치심이 유발되면 처음에는 자기 스스로를 향해 수치심을 느끼고 적대감과 분노를 갖게 되지만, 결국 타인을 향한 적대감과 분노로 전환된다고 주장하였다(Tangney et al., 1992에서 재인용). 김현주, 이정윤(2011)의 연구에서 내면화된 수치심과 분노 표출($r=.28, p<.01$), 분노억제($r=.59, p<.01$)는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Tangney 등(1992)의 연구에서도 수치심은 분노/적대성($r=.13, p<.05$), 분노 반응성($r=.15, p<.05$)과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분노는 수치심과 마찬가지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자존감을 유지하려는 인간의 내적인 동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Crokenberg, 1981; 김진영, 고영진, 2011에서 재인용). 따라서 적절한 분노는 생존을 위해 필수적이지만, 분노의 정도가 지나치거나 자신 또는 타인을 향해 파괴적인 방식으로 표출될 경우 문제가 된다.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종합해보면, 자기에 성향자는 자기에적 욕구가 좌절되면 수치심을 경험하게 되고, 수치심에 대한 원인을 자신이 아닌 외부, 즉 타인에게로 돌려 타인을 비난하거나 파괴적인 방식으로 분노를 표출하여 공격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Baumeister et al., 1996; Bushman & Baumeister, 1998; Lewis, 2008; Salmivalli, 2001; Tangney et al., 1992; Washburn et al., 2004).

비록 외현적 자기에 성향자와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가 똑같이 수치심과 분노를 경험할지라도 분노를 표출하는 방식과 정도에는 차이가 있다. 즉, 외현적 자기에 성향자는 타인의 부정적 피드백을 경험하고 자아 위협을 지각하면 분노 감정을 즉각적으로 표출하거나 주도적 공격성을 사용하는 반면,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는 분노를 표출하지 않고 억제하는 경향이 있다(서수균, 2007).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의 경우 오랜 기간 누적된 분노 감정이

순순간의 촉발 사건(trigger)으로 인해 폭발하면서 충동적으로 표출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점에서 반응적 공격성과 더욱 밀접한 관련성을 보인다(김진희, 2012; 백승혜, 현명호, 2008). 따라서 청소년의 반응적 공격성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외현적 자기에 보다는 내현적 자기에 초점을 두어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기에 성향자가 경험하는 수치심, 분노 자체가 공격성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수치심과 분노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인지적으로 재해석하는가가 공격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입장도 있다(Garnefski, Kraaij & Spinhoven, 2001). 이와 같이 어떤 자극이나 사건에 의해 정서가 촉발되었을 때 이 정서를 조절하기 위해 사용하는 인지적 대처 기술을 인지적 정서조절전략(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y)이라고 하며 크게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예, 조망 확대, 계획 다시 생각하기, 긍정적 재평가, 긍정적 초점변경)과 부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예, 자기비난, 타인비난, 반추, 수용, 과국화)으로 구분할 수 있다(Garnefski et al., 2001). 다시 말해, 수치심과 분노에 취약한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가 이러한 정서를 어떻게 인지적으로 재평가하여 대처하는가에 따라 공격적 행동의 정도는 달라질 것이다(Martin & Dahlen, 2005; Mikolajczak, Nelis, Hansenne, & Quoidbach, 2008). 특히 청소년기는 발달적으로 자신의 생각, 감정, 행동 등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발달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보다 다양한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며(김진희, 2012), 이러한 인지적 능력의 발달이 정서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Garnefski et al., 2001; Garnefski, Kraaij, & Van Etten, 2005).

자기에와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에 관한 국내외

연구들은 자기에 성향자의 경우 수치심과 분노와 같은 부정적 정서에 직면했을 때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사용하기 보다는 부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고, 이로 인해 결국 분노가 공격행동으로 표출된다고 보고하였다(이세연, 유미숙, 2010; 차타순, 2002; Garnefski et al., 2001/2005). 강문선, 이영순(2011)의 연구에서 부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은 내현적 자기에($r=.58, p<.001$), 수치심($r=.59, p<.001$)과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던 반면,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은 내현적 자기에, 수치심과 상관이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이들 연구에서 부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은 내현적 자기에와 수치심의 간의 관계를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은 아무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한편, 자존감 하위유형(높은 자존감 집단, 낮은 자존감 집단, 방어적 자존감 집단)에 따라 공격성, 분노표현 양상을 살펴본 김은희, 강승호(2010)의 연구에 따르면, 자기에 성향을 반영하는 방어적 자존감 집단에서 다른 두 집단에 비해 더 높은 정도의 분노감, 적대감, 신체적, 언어적 공격성이 나타났다. 또한 방어적 자존감 집단이 부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였으며, 이는 부적응적인 분노표현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치심과 분노가 자기에 성향자의 반응적 공격성을 유발할 수 있는 부정적인 정서로 여겨지지만 이것은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부정적 정서를 무조건적으로 억제하기 보다는 적절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학습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고등학교 1·2학년들을 대상으로 한 김진희(2012)의 연구에 따르면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많이 사용할수록, 분노를 파괴적으로 표출하거나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적

절하게 조절하여 표현할 수 있게 된다.

마찬가지로,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가 파괴적이고 공격적인 방식으로 분노를 표출하는 경향이 있다 하더라도,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수치심과 분노와 같은 부정적 정서를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되고 결과적으로 반응적 공격성은 감소하게 될 것이다. 자기에 성향자가 흔히 사용하는 부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덜 사용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직접 가르쳐서 새로운 역량을 키우는 것이 보호요인의 증가라는 측면에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과는 달리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최근 들어 보통의 청소년들조차 부정적 정서를 조절하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반응적 공격성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개인의 성격특성인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부적응적 정서인 수치심과 분노를 거쳐 반응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구체적 기제를 확인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이들의 관계가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의 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중학생의 내현적 자기에가 수치심과 분노를 매개로 반응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중학생의 내현적 자기에가 수치심과 분노를 통해 반응적 공격성으로 가는 경로가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 수준에 따라 차이가 나는가?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해 서울시 소재 2개 중학교 1, 2 학년을 대상으로 750개의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이 중 총 720개의 설문지가 수거되었으며, 설문지 작성 시 1개 이상의 척도에서 응답을 하지 않았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156명(21.7%)의 자료를 분석에서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564명(M=12.52세, SD=.52)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남학생은 386명(68.4%), 여학생은 178명(31.6%)이었으며, 중학교 1 학년은 264명(46.8%), 2학년은 300명(53.2%)이었다.

일반 중학생 집단을 연구대상으로 한 이유는 청소년기 초기에 인지적 능력의 발달과 함께 자아 중심적인 성향이 증가하고,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이 늘어나며, 자신의 생각, 감정, 행동을 인식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증가하게 되기 때문이다(Rice & Dolgin, 1981/2009). 또한 대부분의 자기에 연구들이 위기 청소년이나 임상집단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지만(김은희, 강승호, 2010; 차태순, 2002; Barry, Thompson, Barry, Lochman, Adler & Hill, 2007; Lapsley & Aalsma, 2006; Washburn et al., 2004), 청소년의 발달특성 상 자기에 성향은 일반 청소년과도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측정도구

반응적 공격성

Raine 등(2006)이 개발한 반응-주도적 공격성 질문지(RPAQ; Reactive-Proactive Aggression Questionnaire)를 오인수(2010)가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주도적 공격성 12문항, 반응적 공격성 1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점 Likert 척도(0:

전혀 하지 않았다 ~ 2: 확실히 그렇다) 상에 반응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반응적 공격성 척도만을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위해 문항들을 요인부하량 크기순으로 나열 후 지그재그로 묶어내는 방식으로 문항 묶음화(item parceling)를 실시하여 세 가지 하위차원(AG1, AG2, AG3)의 측정변인을 구성하였다.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한 오인수(2010)의 연구에서 반응적 공격성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82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α =.75로 나타났다.

내현적 자기에

홍상황, 광평호 그리고 한태희(2010)가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개발한 '아동용 자기에 척도' 중 내현적 자기에 요인들만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홍상황 등(2010)의 척도에서 내현적 자기에에는 착취와 공격성, 과민성과 취약성, 자기중심성의 3개 요인,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Likert 척도(0: 전혀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 상에 반응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중학생의 내현적 자기에를 다룬 대부분의 국내 연구는 성인을 대상으로 개발된 강선희, 정남운(2002)의 내현적 자기에 척도를 각 연구자가 연령에 맞게 임의로 수정하여 사용해 왔으나, 본 연구에서는 홍상황 등(2010)의 척도가 강선희, 정남운(2002)의 척도에 비해 문항 내용이 비교적 간단하고 중학교 1·2학년이 더 이해하기 쉬워 이 도구를 선택하였다. 홍상황 등(2010)의 연구에서 내현적 자기에의 내적합치도는 α =.84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α =.88로 나타났다.

수치심

수치심을 측정하기 위해 류설영(1998)이 번안한 청소년용 자의식적 정서 척도(TOSCA-A: Test

of Self-Conscious Affect-Adolescence)를 사용하였다. Tangney, Wagner 그리고 Gramzow(1989)가 개발한 TOSCA-A는 한 시나리오 내에 수치심과 죄책감을 묻는 문항이 각각 제시되고 두 정서를 느끼는 정도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총 12개의 시나리오마다 수치심과 죄책감에 대한 각 1개 문항씩,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수치심에 해당하는 12문항만 사용하였다. 5점 Likert 척도(1: 전혀 그렇지 않을 것이다 ~ 5: 아주 그럴 것 같다) 상에 반응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수치심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위하여 반응적 공격성의 경우와 동일한 방식으로 문항 묶음을 실시하였고 세 개의 측정변수(SH1, SH2, SH3)를 구성하였다. 15~18세 남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류설영(1998)의 연구에서 수치심의 내적합치도는 $\alpha=.72$, 중학교 1·2학년들을 대상으로 한 최기원(2012)의 연구에서는 $\alpha=.74$, 본 연구에서는 $\alpha=.86$ 이었다.

분노

Spielberger, Krasner와 Solomon(1988)의 상태-특성 분노표현 척도(STAXI-2; 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2)를 전경구, 한덕웅, 이장호, 그리고 Spielberger(1997)가 한국판으로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원 척도는 특성분노(10문항), 상태분노(10문항), 분노억제(8문항), 분노표출(8문항), 분노조절(8문항)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Likert 척도(1: 거의 그렇지 않다 ~ 4: 거의 항상 그렇다)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 개인이 화가 나거나 분노를 느낄 때 경험하는 반응이나 행동에 해당하는 상태분노 척도만을 사용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위해 문항 묶음을 실시하여 세 개의 측정변수(AN1, AN2, AN3)를 구성하였다. 이영식, 조주연(1999)의 중·고등학생 연구에서 상태분

노의 내적합치도는 $\alpha=.94$ 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alpha=.87$ 이었다.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

Gamefski 등(2001)이 개발한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 질문지(CERQ;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Questionnaire)를 김소희(2004)가 번안하고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질문지는 적응적인 전략(조망 확대, 계획 다시 생각하기, 긍정적 재평가, 긍정적 초점변경)과 부적응적인 전략(자기 비난, 타인비난, 반추, 수용, 파국화)으로 구분되는 9개 하위요인,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Gamefski et al., 2001). 5점 Likert 척도(1: 거의 그렇지 않다 ~ 5: 거의 항상 그렇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에 해당하는 4개 하위요인, 16문항의 합산점수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12~16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Gamefski 등(2001)의 연구에서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의 내적합치도는 $\alpha=.91$, 홍경화, 홍혜영(2011)의 중학교 1~3학년 연구에서는 $\alpha=.82$ 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alpha=.89$ 였다.

연구절차

본 연구를 위해 2012년 10월 한 달 동안 서울 지역의 2개 중학교 1~2학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 후반으로 갈수록 대상자의 응답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통제하기 위하여 척도들의 순서를 달리하여 3가지 유형으로 설문지를 제작하였다. 설문 응답시간은 10분~15분 정도 소요되었다.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SPSS 19.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독립표본 *t* 검증, 상관분석 등을 실시하고,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내적합치도(Cronbach's *a*)를 산출하였다. 또한 내현적 자기애, 수치심, 분노, 반응적 공격성 변인들의 인과적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AMOS 7.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구조방정식모형(SEM;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구조방정식모형이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 수준(상위 30%, 하위30% 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주요변인들의 기술 통계

내현적 자기애, 수치심, 분노, 반응적 공격성의 최고점수와 최저점수,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또한 관찰된 변인들이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첨도와 왜도를 산출한 결과, 모든 변인의 왜도와 첨도가 정상분포 가정을 충족하였다(표 1 참조).

주요변인들의 상관분석

상관분석 결과, 내현적 자기애, 수치심, 분노, 반응적 공격성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이 폭넓게 나타났다(표 2). 자세히 살펴보면, 내현적 자기애와 수치심($r=.12\sim.35, p<.001$), 분노($r=.11\sim.35, p<.001$), 반응적 공격성($r=.15\sim.32, p<.001$) 사이에 정적 상관이 폭넓게 나타난 반면,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 총점과는 경미한 부적 관련성을 보였다($r=-.10, p<.001$). 수치심의 경우, 분노($r=.15\sim.30, p<.001$), 반응적 공격성($r=.12, p<.01\sim r=.21, p<.001$)과 경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과의 상관은 전혀 유의하지 않았다. 분노와 반응적 공격성은 다른 변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고($r=.31\sim.60, p<.001$), 분노의 모든 하위요인은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r=-.14\sim-.21, p<.001$). 마찬가지로, 반응적 공격성의 모든 하위요인이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과 부적 상관을 보였다($r=-.16\sim-.27, p<.001$).

내현적 자기애, 수치심, 분노, 반응적 공격성 간의 관계

구조모형 검증 및 적합도 분석

내현적 자기애, 수치심, 분노, 반응적 공격성 간의 구조적 관계에 대한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모

표 1 주요변인들의 가능한 점수범위와 평균 및 표준편차 (N=564)

변인	가능한 점수범위	점수범위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내현적 자기애	18-90	18-90	43.50	11.66	.15	-.19
수치심	12-60	12-60	27.64	8.65	.35	-.04
분노	10-40	10-40	20.31	6.20	.85	.84
반응적 공격성	0-22	0-22	7.48	3.62	.51	.61
적응적 인지정서조절	16-80	17-79	47.05	10.60	-.12	.11

표 2 측정변인들의 단순상관분석 결과 (N=564)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 CN 착취와 공격성	1																
2 CN 과민성과 취약성	.55***	1															
3 CN 자기중심성	.44***	.53***	1														
4 CN 총점	.78***	.85***	.82***	1													
5 SH 1	.20***	.33***	.12**	.26***	1												
6 SH 2	.16***	.31***	.14**	.25***	.70***	1											
7 SH 3	.17***	.31***	.14**	.25***	.70***	.77***	1										
8 SH 총점	.20***	.35***	.15**	.28***	.90***	.91***	.91***	1									
9 AN 1	.30***	.29***	.11**	.28***	.29***	.24***	.25***	.30***	1								
10 AN 2	.30***	.31***	.22***	.33***	.20***	.20***	.17***	.20***	.65***	1							
11 AN 3	.31***	.28***	.23***	.33***	.20***	.15***	.18***	.19***	.63***	.74***	1						
12 AN 총점	.34***	.33***	.21***	.35***	.30***	.21***	.22***	.25***	.84***	.90***	.91***	1					
13 AG 1	.21***	.22***	.23***	.30***	.20***	.20***	.20***	.21***	.31***	.32***	.38***	.39***	1				
14 AG 2	.23***	.26***	.24***	.30***	.14**	.15***	.20***	.20***	.40***	.50***	.51***	.52***	.47***	1			
15 AG 3	.21***	.20***	.15***	.22***	.19***	.18**	.12**	.21***	.50***	.43***	.51***	.54***	.51***	.52***	1		
16 AG 총점	.30***	.30***	.30***	.32***	.21***	.20***	.20***	.21***	.50***	.50***	.58***	.60***	.78***	.79***	.84***	1	
17 CO 총점	-.04	-.11*	-.07	-.10*	-.03	.08	.07	.05	-.14**	-.16***	-.21***	-.20***	-.20***	-.16***	-.27***	-.25***	1

*** $p < .001$, ** $p < .01$, * $p < .05$

주. CN= 내현적 자기애, SH= 수치심, AN= 분노, AG= 반응적 공격성, CO=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

표 3 연구모형에 대한 적합도 지수

	χ^2	df	p	CFI	TLI	RMSEA	(90% 신뢰구간)
연구모형	193.087	50	.000	.953	.926	.071	.061 ~ .0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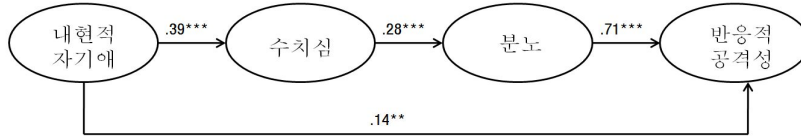


그림 1 내현적 자기에, 수치심, 분노, 반응적 공격성의 구조모형*** $p < .001$, ** $p < .01$

형의 적합도를 확인한 결과, 전반적인 적합도는 수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chi^2(50, N=564)=193.087$, $CFI=.953$, $TLI=.926$, $RMSEA=.071$). 일반적으로 적합도 지수 TLI와 CFI의 경우 .90이상, RMSEA는 .05이하인 경우 모형은 좋은 적합도를 가지며, .08이하면 적절한 적합도를 가진 모형이라고 여겨진다(홍세희, 2000). 본 연구의 적합도 지수는 <표 3>에, 구조적 관계를 나타내는 모형과 각 계수의 추정치는 <그림 1>에 제시하였다.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내현적 자기에가 수치심, 분노를 통해 반응적 공격성으로 가는 모든 경로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각각의 경로계수는 <표 4>에 제시하였다. 내현적 자기에는 수치심에 정적으로 유의한 직접 효과를 가지며($\beta=.39$, $p < .001$), 수치심이 분노로 가는 경로 역시 유의하였다($\beta=.28$, $p < .001$). 연구모형에서 분노가 반응적 공격성으로 가는 경로가 가장 강력하였고($\beta=.71$, $p < .001$), 내현적 자기에에서 반응적 공격성으로의 직접 경로는 가장 미미하였다($\beta=.14$, $p < .05$).

수치심과 분노의 매개효과 검증

단순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Sobel 공식¹⁾을 사용해 Z값을 산출한 결과, 내현적 자기에가 수치심을 통해 분노에 미치는 단순매개효과($Z=5.854$, $p < .001$)와 수치심이 분노를 통해 반응적 공격성에 미치는 단순매개효과($Z=8.907$, $p < .001$)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이중매개효과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다변량 델타방법(Multivariate Delta Method)²⁾으로 Z값을 산출한 결과, 내현적 자기에가 수치심, 분노를 거쳐 반응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이중매개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Z=5.681$, $p < .001$).

적응적 인지정서조절 상·하 집단 간 비교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상·하 집단 간 차이 검증

본 연구의 측정변인들이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 수준에 따라 각 변인들에서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고자 전체 연구대상($N=564$)에서

$$1) Z = \frac{ab}{\sqrt{b^2 SE_a^2 + a^2 SE_b^2}}$$

$$2) Z = \frac{abc}{\sqrt{a^2 b^2 SE_c^2 + b^2 c^2 SE_a^2 + a^2 c^2 SE_b^2}}$$

표 4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경로	경로계수	표준화계수	표준오차	<i>t</i>
내현적 자기애	→ 수치심	.39	.39	.05	7.37***
수치심	→ 분노	.17	.28	.03	5.81***
분노	→ 반응적 공격성	.33	.71	.03	11.13***
내현적 자기애	→ 반응적 공격성	.04	.14	.03	3.02**

표 5 주요변인의 적응적 인지정서조절 상·하 집단 간 평균·표준편차 및 차이검증 결과(*N*=338, *df*=336)

잠재 변인	측정 변인	적응적 인지정서조절		<i>t</i> (<i>p</i>)
		상 집단(<i>N</i> =169) 평균(표준편차)	하 집단(<i>N</i> =169) 평균(표준편차)	
내현적 자기애	작취와 공격성	13.16(4.30)	13.66(4.10)	-1.09
	과민성과 취약성	14.35(5.10)	15.48(4.73)	-2.10*
	자기중심성	13.90(5.10)	14.72(5.33)	-1.46
	총점	41.42(12.08)	43.86(11.26)	-.29
수치심	SH1	9.18(3.10)	9.42(3.55)	-.67
	SH2	9.32(3.10)	8.51(3.41)	2.34*
	SH3	9.38(3.00)	8.65(3.48)	2.08*
	총점	27.88(8.05)	26.57(9.62)	1.36
분노	AN1	6.60(1.96)	7.43(2.20)	-3.67***
	AN2	5.10(1.96)	6.01(2.32)	-3.99***
	AN3	6.85(2.31)	8.31(2.83)	-5.20***
	총점	18.52(5.39)	21.75(6.46)	-4.99***
반응적 공격성	AG1	1.22(.98)	1.85(1.19)	-5.28***
	AG2	1.65(1.26)	2.15(1.24)	-3.66***
	AG3	2.70(1.41)	3.70(1.37)	-6.80***
	총점	6.08(3.29)	8.34(3.19)	-6.43***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 수준이 높은 상위 30%를 적응적 인지정서조절 상 집단(*N*=169),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 수준이 낮은 하위 30%를 적응적 인지정서조절 하 집단(*N*=169)으로 나누어 독립집단 *t* 검증을 실시하였다. 적응적 인지정서조절 상 집단과 하 집단의 내현적 자기애, 수치심, 분노, 반응적 공격성의 평균 및 표준편차와 변인별 차이여부는 <표 5>에 제시하였다.

적응적 인지정서조절 상·하 집단 간 차이를 분

석한 결과, 내현적 자기애와 수치심의 일부 하위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지만 총점에서는 상·하 집단 간에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적응적 인지정서조절 하 집단은 상 집단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분노($t=-4.99, p<.001$)와 반응적 공격성($t=-6.43, p<.001$)을 보고하였으며, 이는 모든 하위요인에서 마찬가지였다.

표 6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상·하 집단의 측정변인들간 단순상관분석 결과(N=338)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	CN	착취와 공격성	1	.49***	.46**	.79***	.20*	.18*	.17*	.20**	.31***	.24**	.21**	.29***	.19**	.14	.24**	.25**	.05
2	CN	과민성과 취약성	.59***	1	.40***	.79***	.45***	.50***	.48***	.52***	.30***	.25**	.21**	.28***	.18**	.25**	.20**	.27**	-.01
3	CN	자기중심성	.44***	.62***	1	.81***	.14	.17*	.14	.16**	.16*	.19*	.18*	.20**	.27***	.24**	.31**	.35**	-.01
4	CN	총점	.79***	.89***	.83***	1	.33***	.36***	.33***	.37***	.31***	.28***	.25**	.32***	.27***	.27***	.32***	.37***	.01
5	SH	1	.16*	.17**	.04	.15	1	.77***	.76***	.92***	.30***	.25**	.27**	.31***	.24**	.24**	.25**	.30***	.01
6	SH	2	.14	.16*	.05	.14	.63***	1	.80***	.93***	.21**	.20**	.17**	.22**	.15	.25**	.17*	.25***	.03
7	SH	3	.19*	.19*	.12	.20*	.67***	.74***	1	.92***	.23**	.20**	.21**	.24**	.16*	.28***	.21**	.27***	-.00
8	SH	총점	.18*	.20**	.08	.18*	.87***	.89***	.91**	1	.27***	.24**	.24**	.28***	.20*	.28***	.23**	.30***	.02
9	AN	1	.25***	.26**	.05	.22**	.23**	.28***	.29**	.30***	1	.65***	.58***	.83***	.22**	.33***	.45***	.43***	.03
10	AN	2	.22***	.29***	.13	.25**	.07	.14	.12	.12	.58***	1	.72***	.90***	.30***	.47***	.42***	.52***	-.02
11	AN	3	.36***	.31***	.15*	.32***	.08	.15**	.18**	.16**	.60***	.68***	1	.90***	.30***	.41***	.50***	.54***	-.04
12	AN	총점	.32***	.33***	.13	.31***	.15	.22**	.22**	.22**	.83***	.86***	.89**	1	.32***	.46***	.52***	.57***	-.02
13	AG	1	.14	.20**	.11	.18*	-.01	.22**	.15	.13	.31***	.29***	.34***	.36***	1	.42***	.34***	.73***	-.01
14	AG	2	.26**	.28***	.18**	.28***	.01	.18*	.11	.11	.33***	.45***	.41***	.46***	.48***	1	.43***	.77***	.07
15	AG	3	.17**	.19*	.03	.16**	.13	.15*	.12	.15	.47***	.42***	.48***	.53***	.45***	.54***	1	.77***	-.09
16	AG	총점	.23**	.28***	.14	.26**	.05	.22**	.15*	.16*	.45***	.47***	.50***	.55***	.74***	.83***	.83***	1	-.01
17	CO	총점	-.15*	-.20*	-.15	-.20*	-.09	-.16*	-.15*	-.15	-.10	-.13	-.19*	-.16*	-.12	-.31***	-.20*	-.26*	1

***p<.001, **p<.01, *p<.05 주. CN= 내현적 자기애, SH= 수치심, AN= 분노, AG= 반응적 공격성, CO=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

대각선 아래: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 상 집단, 대각선 위: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 하 집단

적응적 인지정서조절 상·하 집단에 따른 상관분석

적응적 인지정서조절 상 집단의 경우, 내현적 자기에, 수치심, 분노, 반응적 공격성 변인들 간에 경미하지만 폭넓은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분노와 반응적 공격성은 다른 변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r=.29\sim.55, p<.001$). 하지만 적응적인 인지정서조절의 총점은 내현적 자기에($r=-.20, p<.01$), 분노($r=-.16, p<.05$), 반응적 공격성($r=-.26, p<.01$)과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수치심과는 상관이 유의하지 않았다.

적응적 인지정서조절 하 집단의 경우 주요변인들 간의 상관은 상 집단과 동일한 패턴을 나타냈

지만, 적응적인 인지정서조절은 어떤 변인과도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표 6).

적응적 인지정서조절 상·하 집단에서의 모형 적합도와 경로 차이

내현적 자기에, 수치심, 분노 그리고 반응적 공격성의 관계가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 수준에 따라 유의하게 달라지는지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한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집단 분석에 앞서 기저모형의 적응적 인지정서조절 상·하 집단에 대한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한 결과 상 집단(TLI=.958, CFI=.945, RMSEA=.063), 하 집단(TLI=.959, CFI=.936, RMSEA=.036) 모두 만족

표 7 적응적 인지정서조절 상·하 집단 간 동일성 검증 결과

	χ^2	df	CFI	TLI	RMSEA
측정동일성 제약모형	172.492	108	.962	.953	.042
완전 등가제약모형	190.419	112	.945	.954	.0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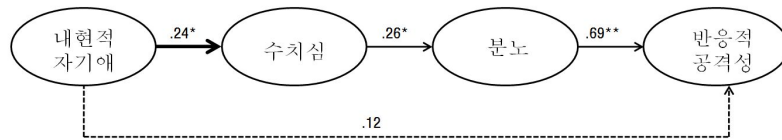
표 8 적응적 인지정서조절 상·하 집단의 구조동일성 모형 적합도 (상·하 집단 각 N=169)

	χ^2	df	p	$\Delta\chi^2$	Δdf	CFI	TLI	RMSEA	판정		
측정동일성 제약모형	172.492	108	.000			.962	.953	.042			
구조모형	모형 1	분노 → 반응적 공격성	174.605	109	.000	.113	1	.961	.953	.042	수용
	모형 2	분노 → 반응적 공격성 수치심 → 분노	174.835	110	.000	.23	1	.962	.954	.042	수용
	모형 3	분노 → 반응적 공격성 수치심 → 분노 내현적 자기에 → 반응적 공격성	175.092	111	.000	.257	1	.962	.955	.041	수용
	모형 4	분노 → 반응적 공격성 수치심 → 분노 내현적 자기에 → 반응적 공격성 내현적 자기에 → 수치심	190.419	112	.000	15.327	1	.954	.945	.046	기각

표 9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경로	표준화 계수					
	상 집단(N=169)			하 집단(N=169)		
	B	SE	β	B	SE	β
내현적자기애 → 수치심	.18	.07	.24	.62	.11	.58
수치심 → 분노	.15	.05	.26	.18	.05	.32
분노 → 반응적공격성	.31	.05	.69	.24	.04	.70
내현적자기애 → 반응적공격성	.02	.02	.12	.05	.02	.23

적응적 인지정서조절 상 집단



적응적 인지정서조절 하 집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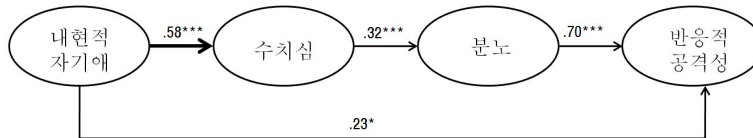


그림 2 최종 모형의 경로계수 (위: 상 집단 / 아래: 하 집단)*** $p < .001$, ** $p < .01$, * $p < .05$

주. 실선: 유의한 경로, 점선: 유의하지 않은 경로, 굵은 선: 경로계수의 차이가 유의한 경로

할 만한 수준이었다. 기저모형의 적합도 확인을 통해 적응적 인지정서조절 상·하 집단 간의 형태동일성이 확보되었다. 적응적 인지정서조절 상·하 집단의 측정동일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모형 내에 존재하는 모든 경로계수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완전 등가제약모형과 기저모형을 비교한 결과 χ^2 차이검증은 유의하였다. 하지만 χ^2 검증이 표본 크기에 민감하고 영가설이 너무 엄격하다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기에 적합도 지수를 비교하였고, 적합도 지수

에서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측정동일성이 확보되었다고 판단하였다($\chi^2_{diff}(4)=17.927$, $\Delta TLI=.001$, $\Delta CFI=.017$, $\Delta RMSEA=.004$). <표 7>에 측정동일성 제약모형과 완전 등가제약모형의 적합도가 제시되어 있다.

그 후, 두 집단의 어느 경로에서 차이가 발생하는지 확인하고자 적응적 인지정서조절 상 집단과 하 집단의 경로계수에서 차이가 가장 작은 순서대로 제약을 가하여 모형을 검증하였다(표 8). 총 4

개 모형 중 3번째 모형까지 수용되고 4번째 모형에서 기각되었으므로, 3번째 모형까지만 동일성이 확보되었다. 따라서 적응적 인지정서조절 상·하 집단 간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4번째 모형을 최종 모형으로 선정하였다(그림 2, 표 8).

적응적 인지정서조절 상 집단에서 내현적 자기애는 수치심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beta=.24, p<.05$), 반응적 공격성으로 가는 직접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수치심에서 분노($\beta=.26, p<.05$), 분노가 반응적 공격성($\beta=.69, p<.001$)으로 가는 경로 모두 유의하였다. 반면 적응적 인지정서조절 하 집단에서는 내현적 자기애에서 수치심($\beta=.58, p<.001$), 수치심에서 분노($\beta=.32, p<.001$), 분노에서 반응적 공격성($\beta=.70, p<.001$)으로 가는 경로가 유의하였을 뿐 아니라, 내현적 자기애에서 반응적 공격성으로 가는 직접 경로($\beta=.23, p<.05$) 또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9).

적응적 인지정서조절 하 집단에서 상 집단에 비해 경로계수가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내현적 자기애에서 수치심으로 가는 경로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즉, 적응적 인지정서조절 하 집단에서 내현적 자기애가 수치심으로 가는 경로가 더욱 강력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일반 중학생의 내현적 자기애가 수치심과 분노를 거쳐 반응적 공격성으로 이어지는 기제를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통해 확인하고, 이 관계가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다집단 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먼저, 각 변인들의 상관분석 결과 내현적 자기애, 수치심, 분노, 반응적 공격성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이 폭넓게 나타났으며, 이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한다(강문선, 이영순, 2011; 권희영, 홍혜영, 2010; Bushman & Baumeister, 1998; Fossati et al., 2010). 물론 비행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예, 김은희, 강승호, 2010; 차타순, 2002)에 비해 주요변인들의 평균값이 낮고 변인들 간의 상관계수 역시 다소 작은 값을 보였지만, 일반 중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했을 때에도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강할수록 수치심, 분노, 반응적 공격성이 높은 동일한 패턴을 보임을 알 수 있다.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은 내현적 자기애, 분노, 반응적 공격성 모두와 경미한 부적 관련성을 보였는데, 이는 성인 교도소 수형자를 대상으로 한 김은희와 강승호(2010)의 연구에서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이 자기애, 공격성과 부적 상관을 보였던 것과 유사하다. 그러나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은 수치심과는 총점 뿐 아니라 하위변인 점수에 있어서도 전혀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강문선과 이영순(2011)의 연구에서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 총점이 수치심과 유의한 상관이 없었던 것과 일치한다. 한편, 이들 연구에서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 총점은 내현적 자기애와도 유의한 상관이 없었는데, 본 연구에서도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 총점은 내현적 자기애와 매우 경미한 부적 상관($r=-.10, p<.05$)만을 보였다.

한편,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본 결과, 연구모형은 수용 가능한 적합도를 보였으며 모든 경로가 유의하였다. 모든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는데,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높은 경우 수치심을 경험하기 쉽고, 이는 분노로 이어지며 이러한 분노감정이 결국 반응적 공격성으로 이어지는 구체적인 기제를 확인하였다. 이 중 분노가 반응적 공격성으로 가는 경로

가 가장 강력하였으며, 내현적 자기에 반응적 공격성으로 가는 직접 경로는 가장 미미하였다. 즉,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그 자체로 반응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보다는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의 분노감정이 반응적 공격성을 일으키는 정도가 훨씬 강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분노와 반응적 공격성의 이러한 관계는 일단 분노감정을 경험하게 되면 반응적 공격성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하며, 효과적 개입은 분노가 일어나지 않게 하거나 분노를 경험하더라도 이를 적절히 조절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것이어야 함을 시사한다.

한편, 연구모형의 경로계수에서 적응적 인지정서조절 상·하 집단 간에 차이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집단 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든 경로가 유의하였던 하 집단과 달리 상 집단에서는 내현적 자기에 반응적 공격성으로 가는 직접 경로가 유의하지 않았다. 즉, 조망 확대, 계획 다시생각하기, 긍정적 재평가, 그리고 긍정적 초점변경과 같은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집단에서는 내현적 자기에 반응적 공격성을 야기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내현적 자기에 수치심으로 이어지는 경로에서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에 내현적 자기에 성향은 수치심으로 덜 이어졌다. 즉,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가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그렇지 못한 경우보다 수치심을 덜 경험하게 된다. 이는 수치심이 상황 자체에 의해 생겨나는 감정이라기보다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에 대한 인지적 해석에 의해 유발되는 감정(송경희, 이승연, 2010; Tangney et al., 1992)인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즉,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자체가 이러한 해석과정에

영향을 미쳐 수치심을 덜 일으킨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일단 수치심을 경험하면 분노가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면 반응적 공격성으로 이어지는 정도는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수준에 따라 차이가 나지 않았다.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가 자기상에 대한 위협이나 좌절 상황에서 수치심이라는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게 되는 정도는 적응적인 인지적 전략을 사용함에 의해 조절이 가능하지만, 일단 수치심이 경험되면 또 다른 부정적 정서인 분노가 유발되며 이 과정에서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효과는 줄어들을 수 있다.

따라서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의 반응적 공격성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수치심을 덜 느낄 수 있도록 상황을 인지적으로 재해석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접근이 필수적일 것이다. 이는 수치심을 성공적으로 다룰 수 있다면 분노나 공격성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Schoenleber와 Berenbaum(2012)의 연구결과와 상통한다. 또한 7~10세 아동을 대상으로 수치심을 다루는 방식과 또래괴롭힘의 관련성을 살펴본 Ahmed(2006)의 연구 역시 성공적인 수치심 관리가 분노, 또래괴롭힘 등의 부정적인 결과를 줄일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한편, 다집단 분석에 앞서 실시된 적응적인 인지정서조절 상·하 집단 간 차이검증은 이러한 다집단 분석과는 언뜻 모순되어 보이는 결과를 보였다. 즉, 적응적 인지정서조절 하 집단에서 분노와 반응적 공격성이 상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난 반면, 내현적 자기에와 수치심에서는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없게 나온 것이다. 다집단 분석 결과에서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가 상황에 대한 인지적 재해석을 통해 수치심을 덜 느끼도록 돕는 것은 분명하나, 적응적인 인지정서조절을 많이 쓰는 것은 내현적 자기에와 수치심 각각의 평균에서 하

집단과 비교하여 큰 이득이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먼저, 집단 간 차이 비교는 각 변인의 평균을 다루며, 다집단 분석에서 경로계수는 사례들의 각 변인에서의 관계를 다룬다는 점에서 두 결과를 직접 비교할 수 없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상관분석 결과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은 수치심과 전혀 상관이 없었음을 주목해야 하는데, 강문선과 이영순(2011)의 연구에서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 총점이 수치심과 유의한 상관이 없었던 것과도 일치한다. 한편,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사용할 경우 수치심 등의 부정적 정서를 더욱 명확히 인식할 수도 있다는 연구결과(권진희, 2011; 김민아, 권경인, 2008)는 본 연구에서 적응적인 전략을 많이 쓰는 집단에서 수치심의 평균이 낮지 않았던 이유를 어느 정도 설명한다.

한편, 강문선, 이영순(2011)의 연구에서 ‘부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내현적 자기에는 .58, 수치심은 .59($p < .001$)의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자기에의 하위유형을 구분하지 않았던 김은희, 강승호(2010)의 연구에서도 부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은 자기에와 .33($p < .01$)의 정적 상관을 보였다. 즉, 부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을 적게 사용하는 것은 낮은 수준의 내현적 자기에, 수치심과 강하게 관련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을 사용하는 정도와 수치심과는 서로 관련성이 없었으며, 내현적 자기에와의 상관 역시 경미하거나 유의하지 않았다. 즉,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을 많이 사용하는 것은 부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을 적게 사용하는 것과 동격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물론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많이 쓰고 있는 집단에서 분노나 반응적 공격성 수준이

더 낮았고 적응적 인지정서조절 상 집단에서 적응적 인지정서조절은 분노, 반응적 공격성과 유의한 부적 상관이 나타나고 있지만, 주목할 점은 하 집단에서는 이 변인들 간의 상관이 유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의 보호효과가 이 전략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는 집단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남을 시사한다.

다집단 분석 시,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보호효과는 이 전략을 많이 쓰고 있는 집단에서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수치심으로 이어지는 정도를 유의하게 더 많이 억제했다는 점에서 나타났다. 앞서 언급했듯이 일단 수치심이 일어난 후 분노를 경험하게 되고 이어서 반응적 공격성에 관여하게 되는 경로에서는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의 보호효과는 줄어들었다. 즉,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의 반응적 공격성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수치심으로 이어지는 고리를 약화시키는 것에 집중해야만 한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반응적 공격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내현적 자기에 성향에 초점을 맞출 필요성을 강조한다. 내현적 자기에는 자기에의 핵심 특징인 지나치게 과장되고 웅대한 자기상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대신 두려움과 열등감, 우울 등의 모습을 띄고 있는 상태이다(Akhtar & Thomson, 1982; Atlas & Them, 2008; Cooper, 1998; Hendin & Cheek, 1997; Wink, 1991). 반응적 공격성으로 인한 행동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타인에 대해 공격적 행동을 할 것이라 사람들이 별로 기대하지 않는, 소극적이고 우울하며, 두려움과 열등감이 많은 학생들에게도 주의를 기울여 이들이 내면에 자기에적 성향을 지니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자기에 성향자는 자신이 타인에게 어떻게 보이는 지에 대해 예민함과 두려움을 지니고 있어, 자신에 대해 웅대하고 과장된 자기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자기 자신은 부족하고 부적절하다고 지각하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박세란, 신민섭, 이훈진, 2005), 자기에 성향자가 자신에 대한 부정확한 자기상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한다. 또한 자기에의 원인에 대해 아직 명확히 밝혀진 바는 없지만, Kohut(1971)의 주장처럼 생애 초기 부모의 비일관적이고 부적절한 보살핌으로 인해 아동이 열등한 자기개념을 형성하게 되고 이를 보상하기 위해 과장되고 웅대한 자기상을 형성할 수 있다(박경순, 안귀여루, 2012). 따라서 내현적 자기에 성향을 지닌 청소년에게 효과적인 개입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긍정적 양육방식에 초점을 둔 부모교육을 병행하여, 충분히 인정받고 공감 받는 지지적인 관계를 회복시키고 이를 통해 자기개념의 재정립과 발달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나 자기에적 특성은 생애 초기에 형성되기 시작하여 청소년 시기에는 이미 어느 정도 성격으로 굳어졌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거나 변화시키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한점을 가진다. 그러므로 한 개인의 성격적 특성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자기에적 특성이 어떻게 반응적 공격성을 유발하게 되는지 그 기제를 이해하여 개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즉,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의 반응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수치심과 분노 감정에 초점을 맞추어 치료적 개입을 한다면, 이미 굳어진 자기에적 성격특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 보다 가시적인 치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앞서 논의했던 대로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 조절전략을 훈련시켜서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가 무엇보다도 수치심을 덜 느끼게 하는 것이 분노,

반응적 공격성으로 이어지는 인과적 고리를 약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는 분노를 경험하더라도 이를 억제하며, 누적된 분노를 한순간에 폭발적이고 충동적인 방식으로 표출하는 경향성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백승혜, 현명호, 2008; 서수균, 2007), 분노 감정을 효과적으로 다스리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물론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이 분노에서 반응적 공격성으로 이어지는 인과적 경로에서 상·하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일으키지는 않았지만, 적응적인 전략을 많이 쓰는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분명 분노와 반응적 공격성 수준이 유의하게 더 낮았다. 여기서 적응적 인지정서조절과 분노, 반응적 공격성의 부적 상관은 적응적인 전략을 많이 쓰고 있는 집단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났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즉, 상·하 집단 간 평균 차이는 상 집단에서 분노와 반응적 공격성에 대한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억제효과로 인한 것이다. 따라서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가르쳐서 분노가 유발되는 상황 및 분노감정 자체를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하는 개입은 여전히 타당하다. 선행연구에서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사용은 분노반응의 감소(김은희, 강승호, 2010) 및 긍정적인 분노표현(김진희, 2012)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이 밝혀진 바 있다.

본 연구의 의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반응적 공격성을 이해하기 위해 내현적 자기에에 초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겉으로는 우울과 불안, 열등감 등 공격성을 보일 것 같지 않은 아동·청소년들이 어떻게 충동적으로 공격적 행동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이해의 틀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임상 및 교육현장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둘째, 본 연구는 그동안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내현적 자기에 초점을 두고, 수치심, 분노, 반응적 공격성으로 이어지는 구체적 기제를 밝혀 개입의 기초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일부 변인들 간의 관계만을 다루었던 기존 연구들과 차별화된다.

셋째, 내현적 자기에 성향을 지닌 청소년의 반응적 공격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훈련시켜 부정적 정서, 특히 수치심을 다스리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위기 청소년이나 임상집단을 대상으로 했던 기존 자기에 연구들과는 달리,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이들의 자기에 성향과 그로 인한 정서행동문제를 이해하는데 기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음을 밝힌다. 먼저, 설문조사가 서울지역의 두 개 중학교에만 한정되어 있어 결과의 일반화에 제한이 있으며,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로만 자료가 수집되어 사회적 바람직성이나 자신에 대한 불완전한 이해가 반영되었을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720개의 설문지가 수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응답이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료가 156명(21.7%)으로 많아 자료의 손실이 있었다. 연구 자료와 제외된 자료 간에 주요변인들에서의 차이는 거의 없었다. 마지막으로,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치료적 함의를 발견하기는 하였으나, 부적응적인 전략에는 초점을 두지 않음으로써 연구의 폭이 줄어들었다는 단점이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부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과 내현적 자기에, 수치심, 공격성 등의 강한 상관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러한 부정적 속성을 줄이기 위해 부적응적인 인지적 정서

조절전략을 덜 사용하게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것이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것과는 결코 같은 의미가 아님을 기억해야만 한다.

참 고 문 헌

- 강문선, 이영순 (2011). 내현적 자기에 성향과 내면화된 수치심과의 관계: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2(5), 1545-1560.
- 강선희, 정남운 (2002). 내현적 자기에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4), 969-990.
- 곽진영, 하은혜 (2010). 청소년의 자기에와 우울증상의 관계에서 수치심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7(3), 315-331.
- 권진희 (2011). 정서인식의 명확성과 정서표현성 및 대인관계문제와의 관계. *상담평가연구*, 4(1), 37-49.
- 권희영, 홍혜영 (2010). 중학생의 내현적 자기에와 우울과의 관계: 자기비난과 수치심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4), 1023-1048.
- 김민아, 권경인 (2008). 적응유연한 청소년의 정서인식 명확성과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에 관한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16(1), 15-32.
- 김소희 (2004). 스트레스 사건,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은희, 강승호 (2010). 자존감,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과 공격성 간의 관계: 교도소 수용자를 대상으로. *한국교정학회*, 47, 119-143.
- 김진영, 고영건 (2011). 청소년의 분노표현 양식과

- 지각된 정서적 유능성이 학교분노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7(1), 63-79.
- 김진희 (2012). 청소년의 자기애성향과 분노표현의 관계에서 인지적 정서조절의 중재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한술 (2013, 1, 7). 무차별 가해 '이상동기 범죄자', 85%가 친구 한 명 없는 외톨이.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1072152075&code=940202에서 2013, 1, 7 인출.
- 김현주, 이정윤 (2011). 청소년의 애착과 분노표현의 관계: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 효과. 상담학연구, 12(3), 965-981.
- 류설영 (1998). 대인관계 상황에서의 죄책감, 수치심과 심리적 증상의 관계 연구: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의 비교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경순, 안귀여루 (2012). 청소년들의 자기애와 수치심의 관계: 대상관계의 중재효과. 인지행동치료, 12(1), 97-112.
- 박세란, 신민섭, 이훈진 (2005). 외현적·내현적 자기애의 자기평가와 정서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4(2), 255-266.
- 백승혜, 현명호 (2008). 내현적, 외현적 자기애 성향자의 적대감, 분노경험 수준 및 분노표현양식.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7(4), 1001-1017.
- 서수균 (2007). 자존감과 자기애 수준에 따른 분노사고, 신념, 분노표현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3), 719-734.
- 송경희, 이승연 (2010). 청소년의 마음읽기 능력과 또래괴롭힘의 관계: 도덕적 이탈, 도덕적 정서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3(3), 105-124.
- 오인수 (2010). 괴롭힘을 목격한 주변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 공감과 공격성을 중심으로. 초등교육연구, 23(1), 45-63.
- 이세연, 유미숙 (2010). 청소년의 자기애 및 자존감과 공격성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7(7), 101-128.
- 이영식, 조주연 (1999). 한국판 청소년 상태-특성 분노표현척도의 표준화 연구. 대한신경정신의학회, 38(4), 794-804.
- 이준호 (2012, 11, 7). 10대 싸움 말리던 50대 남성 무차별 폭행당해 중태. 한국일보. <http://news.hankooki.com/1page/society/201211/h2012110721453121950.htm>에서 2012, 11, 7 인출.
- 이홍, 김은정 (2012). 청소년의 공격성 하위 유형에 따른 인지 및 정서 특징. 청소년학연구, 19(1), 227-250.
- 전검규, 한덕웅, 이장호, Spielberg, C. D. (1997). 한국판 STAXI 척도 개발: 분노와 혈압. 한국심리학회: 건강, 2(1), 60-78.
- 차타순 (2002). 자기애적 성격성향과 청소년 비행성향간의 관계. 청소년상담연구, 10(1), 71-86.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11).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
- 최기원 (2012). 남녀 중학생의 도덕적 정서와 또래괴롭힘 방어 및 방관행동의 관계 : 지각된 학급규준의 조절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경화, 홍혜영 (2011).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상환, 광평호, 한태희 (2010). 아동용 자기애척도의 구성과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7(3), 333-352.

- 홍세희 (2000). 특별기고: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 임상*, 19(10), 161-177.
- Ahmed, E. (2006). Understanding bullying from a shame management perspective: Findings from a three-year follow-up study. *Educational and Child Psychology*, 23(2), 25-39.
- Akhtar, S., & Thomson, J. A. (1982). Overview: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39(1), 12-20.
- Atlas, G. D., & Them. M. A., (2008). Narcissism and sensitivity to criticism: A preliminary investigation. *Current Psychology*, 27(1), 62-76.
- Barker, E. D., Tremblay, R. E., Nagin, D. S., Vitaro, F., & Lacourse, E. (2006). Development of male proactive and reactive physical aggression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7(8), 783-790.
- Barry, T. D., Thompson, A., Barry, C. T., Lochman, J. E., Adler, K., & Hill, K. (2007). The importance of narcissism in predicting proactive and reactive aggression in moderately to highly aggressive children. *Aggressive Behavior*, 33(3), 185-197.
- Baumeister, R. F., Smart, L., Boden, J. M. (1996). Relation of threatened egotism to violence and aggression: The dark side of high self-esteem. *Psychological Review*, 103(1) 5-33.
- Berkowitz, L. (1962). *Aggression: A social psychological analysis*. New York: McGraw-Hill.
- Bushman, B. J., & Baumeister, R. F. (1998). Threatened egotism, narcissism, self-esteem, and direct and displaced aggression: Does self-love or self-hate lead to viol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1), 219-229.
- Cooper, A. M. (1998). *Further developments in the clinical diagnosis of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pp. 53-74). Arlington, VA: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 Dodge, K. A., & Pettit, G. S. (2003). A biopsychosocial model of the development of chronic conduct problems in adolesc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39(2), 349-371.
- Espelage, D. L., & Swearer, S. M. (2003). Research on school bullying and victimization: What have we learned and where do we go from here? *School Psychology Review*, 32(3), 365-383.
- Fossati, A., Borroni, S., Eisenberg, N., & Maffei, C. (2010). Relations of proactive and reactive dimensions of aggression to overt and covert narcissism in nonclinical adolescents. *Aggressive Behavior*, 36(1), 21-27.
- Gamefski, N., Kraaij, V., & Spinhoven, P. (2001). Negative life events,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and emotional problem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0(8), 1311-1327.
- Gamefski, N., Kraaij, V., & Van Etten, M. (2005). Specificity of relations between adolescent's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 strategies and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sychopathology. *Journal of Adolescence*, 28, 619-631.
- Hendin, H. M., & Cheek, J. M. (1997). Assessing hypersensitive narcissism: A reexamination of Murray's Narcissism Scale.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1(4), 588-599.
- Kohut, H. (1971) *The Analysis of the self*.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Koolen, S., Poorthuis, A., & van Aken, Marcel A. G. (2012). Cognitive distortions and self-regulatory personality traits associated with proactive and reactive aggression in early adolescence.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36(6), 776-787.
- Lapsley, D. K., & Aalsma, M. C. (2006). An empirical typology of narcissism and mental health in late adolescence. *Journal of Adolescence*, 29(1), 53-71.
- Lewis, H. B. (1971). *Shame and guilt in neurosis*.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Lewis, M. (2008). *Self-conscious emotions: Embarrassment, pride, shame, and guilt*. New York: Guilford Press.
- Marcus, R. F., & Kramer, C. (2001).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Attachment and social competence predictors.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62(3), 260-75.
- Martin, R. C., & Dahlen, E. R. (2005).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in the prediction of depression, anxiety, stress, and anger.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9(7), 1249-1260.
- Mikolajczak, M., Nelis, D., Hansenne, M., & Quoidbach, J. (2008). If you can regulate sadness, you can probably regulate shame: Associations between trait emotional intelligence, emotion regulation and coping efficiency across discrete emotion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4(6), 1356-1368.
- Papps, B. P., & O'Carroll, R. E. (1998). Extremes of self-esteem and narcissism and the experience and expression of anger and aggression. *Aggressive Behavior*, 24(6), 421-438.
- Poulin, F., & Boivin, M. (2000).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Evidence of a two-factor model. *Psychological Assessment*, 12(2), 115-122.
- Raine, A., Dodge, K., Loeber, R., Gatzke-Kopp, L., Lynam, D., Reynolds, C., Stouthamer-Loeber, M., & Liu, J. (2006). The reactive-proactive aggression questionnaire: Differential correlates of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in adolescent boys. *Aggressive Behavior*, 32(2), 159-171.
- Raskin, R., & Terry, H. (1988). A principal-components analysis of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and further evidence of its construct valid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5), 890-902.
- Rice, F. P., & Dolgin, K. G. (2009). 청소년심리학[*The adolescent: Development*,

- relationships, and culture*]. (정영숙, 신민섭, 이승연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원전은 1981년에 출판).
- Salmivalli C. (2001). Feeling good about oneself, being bad to others? Remarks on self-esteem, hostility, and aggressive behavior.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6*(4), 375-393.
- Salmivalli, C. & Nieminen, E. (2002). Proactive and reactive aggression among school bullies, victims, and bully-victims. *Aggressive Behavior, 28*, 30-44.
- Schoenleber, M. & Berenbaum, H. (2012). Shame regulation in personality patholog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21*(2), 433-446.
- Spielberger, C. D., Krasner, S. S., & Solomon, E. P. (1988). *The experience, expression and control of anger*. Health Psychology: Individual differences and stress (pp. 89-108). New York: Springer-Verlag.
- Tangney, J. P., Wagner, P. E., Fletcher, C., & Gramzow, R. (1992). Shame into anger? The relationship of shame and guilt to anger and self-reported agg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2*(4), 669-675.
- Tangney, J. P., Wagner, P. E., & Gramzow, R. (1989). The test of self-conscious affect. Fairfax, VA: George Mason University.
- Thomaes, S., Stegge, H., Olthof, T., Bushman, B. J., & Nezelek, J. B., (2011). Turning shame inside-out: "Humiliated fury" in young adolescents. *Emotion, 11*(4), 786-793.
- Washburn, J. J., McMahon, S. D., King, C. A., Reinecke, M. A., & Silver, C. (2004). Narcissistic features in young adolescents: Relations to aggression and internalizing symptom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3*(3), 247-260.
- Wink, P. (1991). Two faces of narciss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4), 590-597.
- Vitaro, F., Brendgen, M., & Tremblay, R. E. (2002). Reactively and proactively aggressive children: Antecedent and subsequent characteristic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3*(4), 495-506.

1차 원고 접수: 2013. 01. 14.
수정 원고 접수: 2013. 02. 21.
최종 게재 결정: 2013. 02. 22.

The Relations among Covert Narcissism, Shame, Anger, and Reactive Aggression, focusing on the Role of Ada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Ji-Hyun AnSeung-Yeon Lee

Department of Psychology, Ewha Woma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how ada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affects the relationships among across covert narcissism, shame, anger, and reactive aggressio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d multi-group analysis were conducted using self-report data from 564 middle school students. The SEM analysis revealed that shame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covert narcissism and anger, and anger serves a mediator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hame and reactive aggression. Further, shame and anger both served as mediator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overt narcissism and reactive aggression. According to the multi-group analysis, the direct path from covert narcissism to reactive aggression was not significant for the upper 30% group of scores on the scales of ada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Further, there was a significant group difference in the path from covert narcissism to shame. Effective prevention and intervention strategies based on these findings were discussed to decrease reactive aggression. The importance of enhancing ada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was also emphasized.

Key words: Covert narcissism, Shame, Anger, Reactive aggression,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Adolescents